

# 육우농가의 소리

몇년 전만 해도 농촌에서 소를 기르면 한가롭고 평화스런 모습을 상징시켰다. 그러나 오늘날은 농촌에서의 그런 낭만은 사라지고 황폐한 농촌, 각박한 농촌으로 변화되어 있다.

남양주군 마석에서의 이야기이다. 개 한마리를 잘 길러 마석시장에서 20만원을 받고 팔아 그 돈으로 송아지 한마리를 사고도 돈이 남아 막걸리를 얼큰하게 마시고 시장에서 돌아오는 사람을 만난적이 있다. 흔히 물건값이 형편없이 싸서 일을 그르칠때 '개값'이라고 했는데 이젠 소값이 개값보다 못하게 되어 그 표현이 바뀌어야 할 형편이다. 개값만 되어도 괜찮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사실이 그런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생체 kg당 시장가격이 맞게 나타나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마을의 반장집 이야기이다. 사십대 나이인 그는 '83년 후반기에 4백만원으로 한우 3두를 사들였다. 물론 자금은 일부가 자기 돈이고 일부는 농협융자금으로 충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세마리중 한마리는 불임우였고 두마리는 각각 송아지를 1마리씩 낳아 다섯마리를 길러왔다. 소에 매달려 그는 매일 꼴을 베어나르는데 신경썼고 농사는 부인이 짓다시피 하였다. 그런데 빛도 갚아야 했고 버티기가 어려워 소를 팔아야 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소장수를 불러들였다고 한다. 얼마를 주겠느냐고 몇번을 재촉해도 소장수가 말이 없는지라 그 반장이 말을 꺼냈다고 한다. 다섯마리 전부를 1백50만원에 가져가라고 권하였더니 그 소장수는 아무 말없이 그냥 집을 나가버리더라는 것이었다. 그동안의 인건비는 고사하고 짚자르기 위해 구입했던 카타기의 전기료도 대기 어려운 형편이라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다가 하는 수없이 고삐를 풀어 산속에 집어넣고 내려오면서 우리 집에 들려 거나하게 취한 술김에 털어놓는 이야기였다. 말을 꺼낸 그 반장의 눈시울이 축축히 젖어 있어 더이상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자 나의 상식대로 대충 위로의 말을 해 줄 수 있을 따름이었다.

소값이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농가의 잘못인가,



진 교 복

육우농가 / 경기 가평군 북면  
도대리227 북일농장

· 한우 쇠고기가 세계 어느 나라의 쇠고기보다 맛있다고 자부하면서도 호텔용 수입을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니 대체해 주기 바란다·

안다면 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의 잘못으로 빚어진 결과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인가?

지식이나 이론이 풍부한 전문가들은 각종 통계숫자를 소상하게 나열하면서 조리있게 원인을 설명하지만 나는 소 기르는 농민에 불과해 깜짝 놀라게 할만한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전문가들의 말로는 우리나라 소 사육두수의 적정규모는 2백만두 남짓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증가추세로 보아 2백만두 확보는 이미 2년전에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 후에도 쇠고기는 계속 수입되었고 송아지도 수입하였다. 적정 사육두수가 초과했는데 왜 정책당국에서는 수입을 계속해야만 했는가?

얼마전에 호텔 부페식당에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다. 울긋불긋한 음식들을 앞사람들이 쟁반에 집어담는데 나는 별로 구미에 들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지나치다가 맨 마지막쯤에 소꼬리 점같은 게 있어 그것만 한 쟁반 담아 먹은 적이 있다. 손님들은 별로 찾지도 않는 이 소꼬리가 바로 수입되어야만 된다고 야단을 부리는 것이었는지 한심스러웠다. 원가보상은 고사하고 소길러 자살하기에 이른 형편에서 국내 소는 남아 처치곤란인데 외국 소꼬리를 수입해도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분수가 있는 사람의 사업자세일까.

정치가나 사업가 혹은 관광을 원하는 사람들이 외국이 많이 드나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이 일본이나 독일 혹은 홍콩 등지에 갔을 때 그 나라 호텔에서 우리 한우 쇠고기를 수입해다 요리 해주는 것을 먹어보았다는 말을 아직 들이 본 적이 없다.

얼마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축협 휘경동 창고에는 '83년도 수입쇠고기가 그대로 쌓여 있다고 한다. 우리 농민들은 아침식사 후에 점심을 지을 걱정하고 점심식사 후에 저녁밥 지을 걱정을 해도 늦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83년도에 수입하여 '85·'86년도까지 먹을 작정을 하는 풍부한 생활을 계획하는지.....

그렇다면 필요에 의해서 수입을 했다고 하면 왜

남아돌 때는 수출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지, 모자랄 때 수입할줄 알면 남을 때는 수출할 줄도 알아야지.

백보 양보해서 농민의 희생을 감수한다고 해도 소값 내리면 쇠고기 사다먹는 소비자들도 싸게 사 먹을 수 있는 현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쇠고기나 소를 수입함으로써 정부가 마진을 얻었다면 그것을 이 불황에 투자한다는 각오로 허덕이는 아프리카 등지의 나라에 과감히 수출하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불황대책으로 앞으로는 소나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길 바란다. 그리고 한우 쇠고기가 세계 어느 나라의 쇠고기보다 맛있다고 자부하면서도 호텔용 수입을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니 대체해 주길 바란다.

소매 정육점이 과거에는 허가제였던 것이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육점이 많이 늘어나 과거에 많이 팔리던 정육점이 이젠 그만큼 안팔려 정육점도 어려운 실정이라고는 하나 그것으로 정육점의 위반사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축협직매장을 확대해야 한다. 시·군단위 축협 판매조직으로는 부족하면 면·리 단위농협까지도 사업자등록을 확대하여 직매장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정해진 가격대로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많이 사먹도록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뚜렷한 해결책으로 불황을 극복할 대안이 없는 한 우선 급한 것은 사료값의 인하라고 생각한다. 사료값 인하는 문제점이 많다고들 한다면 부가세만이라도 시한부로 면세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선진국 축산형태는 어떠한 지도 모르고 소를 기르는데 뛰어들었다. 선진국에 비교해서 농후사료를 너무 많이 쓴다고 지적하는 것을 이제 우리 농가들도 반성할 때라고 생각한다. 조사료를 확보하는 기반을 차츰 조성해 나아가 할 것이다.

또한 부존자원인 「풀」로써 만든 쇠고기를 국민들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홍보하자.